외대학보

서기 1964년 2월21일 발행 제74호

발행인 최완복 편집인 장하인 주간 조재면

한국외국어대학 발행소 외대학보사 TEL ⑤6091·6092·609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270 일부 4원

(서기 1958. 3. 27. 제3종 우편물인가)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THE PUBLISHING DEPARTMENT OF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졸업생에게 주는 글

學長 崔完福

4년동안 인생의 청춘을 이 학원에서 지내고 이제 막 사회로나 서려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하여야 좋을까 생각할때 할말이 너무 많은것같기도하고 또한편 생각하면 아무할말이 없는듯 하기도하다. 그만큼 나가는 사람이나 떠내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착잡하기때문이다.

나는 지금 단한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제군들이 당장 「무엇을 할것인가?」하는 직장문제에 대하여서다. 아마 이 문제는 제군들이 가장 관심을가지고 가장 부심하고 가장 암담하게 생각하는 문제일 것이다.

제군가운데는 이미 직장이 정해져있어 졸업하는 날만을기다리는축복된 사람도 있을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이 순간까지 구하기힘든 직장을 찾아서 헤매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욱 많은수의 사람은 이 모든것에 실패하였거나 또는 아직 갈 방향을 잡지못하고 있을것이다.

나는 이러한 학생의 앞길을 생각할때 정말 암담하지않을수 없다. 4년동안의 전문적인 학업을 마치고 지식이 있고 기능이 있고 일할 의욕을 가지고 사회에 나서려는 이 젊은이들 앞에 일할 자리가 거절된다는 이현실간이 암담한 일이 또 어디 있는가? 제군들의 실의와 비감과 분노를 공감하지않을수 없다.

× × ×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처해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또한 제군뿐만 아니라 같은날 대학의 문을 나오는 많은 사람들 앞에 공통된 길이다

우리는 물론 하루바삐 이건 현실이 부정되기를 바란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가 마련되는—지극히 ...

사설: 대학원에의 초대

봄이 오고 또다시사람들은머지않아 초목의새싹이 돋을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자기의 학문을 반성하면서 먼미래를 전망하는 계절이 되었다. 미래를설계할때처럼진지할때는없다. 그것은자기의능력의회계장부와자기의 순수한양심과 상담해야만하는것이기 때문이다. 일분일리의 오차도 묵과해서는 안될것이다.

큰기대를 걸었던 五개년계획이 성대한 기공식만 보여주고 아무런 진척의 보고를 내지못함은 왜냐? 책상위에서 난로옆에서 짜여진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눈과 고름을 밟고 한종에 눈물지우며 실재 그대로의 「데이타」를 캐는 어려운 과정을 생략해 버렸기때문이다. 실로우리는 fact—finding에 더 많은 정성과 시일을 아낌없이 바쳐야만 했었다. 실태를 파악하는데 3년걸려도 4년이 걸려도 결코 허비된 세월은 아니었던 ...

이고 그 박학으로서 그만 못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자기자신의 허물투성인 본체를 감추어 안전을 얻는 도구로 퇴락되어버렸다. 알면 얼마나 알고 있단 말인가. 「쿵고」의 토민들이 실지의 자연생활에서 배운 야수와 초목과 곤충과 기후의 지식이탁월한 「조동사론」을 저술한 위대한 학자의 예지에 비할것이 못된다고 단정할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는것이다. 오늘날 우리국민들은 분명히 그릇된 희망을 학문에다 걸고 있다. S대학은 명실공히 민국의 우수한 대학이다. 그러나 S대학만이 「우수」를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도 S대에 들기위해K고로 또 K고에 들기위해 K중으로 또K중에 들기위해 K국민교로 또 K교에 들기위해 K유치원으로 지원하고 있는실정이다. 「지원」이 아니라 「운집」이다. K중에 합격되도록 아동을 지도하는 개인교사의월 ...

... 성하는 곳이다. 외국 방에도 학했을 때 자국과 다름없이민국을 익(益)하는 사무를 진행하고 단시일에 완수하고 기어코 「풀러스」를 갖고야 돌아오는 청년 실력자를 배육하는 곳이다.

인간은 Problem-solving animal이다.

성실과 Fact에 기반을 두고 올바른 탐구와 맹렬한 훈련을 받은 자가 해결치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학을 공부하는 것은 영국인이나 불란서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기때문이다. 대학원에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의 외에도 스승과 학생이 마주앉아 같이 「세미나」를 시행하고 토론하고 합작으로 논문을 쓰고 언제나 현실을 직시하면서 병자를 옆에둔 의사의 태도로서 탐구가 계속된다. ...

... 전조하여 도선으로 취항시킬것인가… 학문의 본질도 오늘날 우리에게 신랄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학문은 남에게 보 ...

... 실력을 토대로 특히 문화교류 외교의 분야에서 민국의 전도에 가로놓인 중대사명을 실지로 처리할 수 있는 인물을양 ...

... 기관이 될것이다 왜냐하면 외대는 국내 어느 대학보다 많은 종류의 어학이 학부에서 연구되고 있기때문이다.

63학년도 제7회 학사, 제1회 석사 학위 수여

27일 오후 2시, 대학교정에서

윤군등 9명에 최우수상

<학장상의 김태정양> <학장상의 김용부군> <학장상및 독일대사상의 이영숙양> <학장상및 외무부장관상의 서재희군> <학장상의 강신만군> <학장상및 중국대사상의 김공수군> <학장상및 불란서대사상의 한경자양>

<학장상및 서반아대사상의 윤석영군> <영국대사상의 이희승군> <학장상의 이경희양>

1963학년도 학사학위및 석사학위 수여식이 오는 2월27일 오후2시부터 최완복 학장을 비롯하여 박술음 대학원장과 내외 귀빈 다수및 본대학 재교수의 참석아래 봄볕에 둘린 본대학교정에서 거행된다.

본학위 수여식에서 400명의 새학사들이 최학장으로부터 문학사 학위를 수여받게될것인바 이로서 이미 수많은 영재를 길러냄으로서사학으로서의 최고권위를 굳혀가는본대학으로서는 제7회째의 학사학위 수여식이된다.

또한 이날 본대학으로서는 최초로 대학원 졸업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게 됨으로써 5명의 새 문학석사를 배출한다. 제1회 문학석사학위를 받게될 5명은 영어과 3명 독어과1명 불어과 1명이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학위 수여식에서 4년동안 각과에서 최우수 성적을 나타냄으로써 이날 영예의 주한 각국 대사상 및 외무부 장관상 수상예정자는 서어과의 윤석영군을 비롯하여 9명인데 전공과목 최우수자는 주한 각국 대사상과 외무부 장관상(로어과)을받을것이며 학장상은 전과목 최우수자에게 수여된다.

한편 금년도 본대학 각과별 졸업생수 및 전공과목과 전과목 최우수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졸업생 수

E 166명 F 59명 C 21명 G 89명 R 24명 S 41명 합계 400명

▲전공과목최우수자 (괄호안은 출신학교명)

E이희승(덕수상고)=영국대사상
F한경자(창덕여고)=불란서대사상
G이영숙(경기여고)=독일대사상
C김공수(서울고)=중국대사상
R서재희(남원농고)=외무부장관상
S윤석영(대전고)=서반아대사상

▲전과목 최우수자 (학장상수상자)

E=김태정(이화여고)
　강신만(정남상고)
　김용부(마산고)
F=한경자
C=김공수
G=이영숙
　이경희(진명여고)
R=서재희
S=윤석영

신학기 등록액 결정

—29일에 등록 마감—

명예문학 박사학위 박술음교수에 수여

=20일, 연대 졸업식서=

지난 20일연세대학교 졸업식에서 본대학 대학원장 박술음교수는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날 오후2시에 거행된 학위수여식에서 동학위를 수여받은 박교수는 1957년1월14일부터 현재에이르기까지 줄곧 방송을통해영어 영문법을 강의했고 영문학서적 저술과 한국영문학계에 많은 공헌을한 바있는데 지난 1962년8월14일에는 공보부로부터 「방송교양 문화상」을 받은 바도있다

동 학위를 받은 박교수는 소감에서 다음과같이 말하고있다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니 전보다 더욱 책임이 무거워 지는 느낌이어서 요지음은 전보다 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데 계속 더 공부하겠다.』

최교수 부임

신규 6개 장학금 추가

학내 장학금 총 20여종

본대학 장학 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신학기부터 이제까지 기존하던 대생 장학금등 14개 장학금 이외에 새로이 삼성장학금을 비롯한 ...

⑥기타 장학금 약간명

ROTC 단장에 박영극 대령

명년부터 150명 가능

단장=박영극 대령
장교=김근배 소령. 박용석 소령 윤용구 대위. 최용헌 대위 외 조교 7명

교무처장 경질

정기엽 교수 임명

중국어과 과장으로 취임했었다

정 교무처장은 취임소감에서 『역량껏 학교당국의 방침을 따라 아카데믹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며 힘껏 해보겠다』고 말했다

임 교수 귀국

이태리시찰마치고

행운과 건투 있으라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2월은 희비의 달이다 헤어지고 떠나가고 떨어지고 붙고 그러나또2월은 가슴벅찬 달이다 저마다한걸음 앞서 달려나가는 가운데 내일의 행운에 다시 마음 설레지만 그러나 여기 그대부분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교정을 뒤로한채생각하면 십육년간의 학업이라는긴 여정에 그 종지부를 찍고 지성을자랑하는 한 사람의 학사로 그첫발을 사회에 내딛게될 졸업생들의감회는 누구보다도 절실하리라 믿는다 때로는 춥지않는인간 삶의 회의속에서. 갈수록 끝이지 않을듯한외국어 숙달을 위한노고속에서. 또 때로는 오해와 질시와 시기로 뭉쳐진 그 젊은 우정과 애정의 갈등속에서. 그리고 또때로는 학비를 위한 남모를 각고속에서 아마 그들 400여 새학사들은 오늘의 이 영광을 갖게됨에 참으로 눈물나는 기쁨이라 아니할수없을것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십육년간의 학업을 위한 그 많은 노고속에서 이제 모든것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결정적인 최후의 사년간을 성공적으로 막끝내게된 400여학사들에게 서슴치 않고 박수갈채를 보내게된것을 우리들은 다같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지금까지 지도하고 감싸주던 많은 교수나 친구들과의 석별의 정을 안은채 그 대부분이 실사회에 발을딛게 될 적지아니 불안을 느낄것임은 ... 그것은 한국적인상황속에서 더한층 심각한바 있을것이다.

충분히 일할 의욕과 능력을 갖었음에도 받아들일수없는 이 안타까운 한국사회의 엄연한 현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실망하기에앞서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더 내조국 내민족을 위해서 해야할 많은일, 해결 되어야할 많은 모순을발견할수 있겠기에 한층더 꾸준한인내력과 투지력속에서 우리들의 지식을활용함으로써 민족의 마음속에 미래의 상을 밝힐 수있는 지도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스스로의 위치를 발견하고 창조하기에 더큰 의욕을 느낄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일곱번째로 우리대학이 배출하게될 영예로운 400여학사는 그 모두가 선진제국의 문화와 문명을 흡수 내지 교류하고국제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상호교류에 기여할 실질적인 지식을 터득하려했음에 비추어 ... 20세기 ...의 뒤를 이어 이 나라의 발전을위한 그들 400여학사들이 지닌지식의 활용과 이룬 교정에서 엮어진 4년간에 걸친 높은 인간수업의 활용이란 더욱 절실한바 있는것이라 믿는다.

또한 교정을 떠나게 되는 400여학사들의 그 일거일동이 곧 항상여러분과 같이 있게될 모교와 후배에게 그대로 직결될것임을 생각할때 다시한번 자랑스런 긍지와역량있는 사회역군으로 언제 어디서든 주인이 되어야할것임을 믿어마지않으며 이제 이 정든 이문 교정을 뒤로남기고 떠나게될 400여 새학사들의 내일에 행운과 건투있기를 충심으로 축복해 마지않는것이다. 외대를 아끼고 위하는 우리모든 외대인에게는 오직 신념있는 단결과 전진만이 있을뿐이다.

이문 Chronicle

웅지에는 PR도? 절식으로 일거양득을

축 졸업

1963학년도 졸업생명단

▲영어과 ▲불어과 ▲중어과 ▲독어과 ▲노어과 ▲서어과

알림

본보 제74호와 제75호는 각 2면으로발행케되었읍니다.

따라서 고정난인『News Maker』와『번의자리』및『전후문학세계를 본다』가 쉬게되고 학과난『미주기구의 성격과당면문제』도 한76호에서 연재케 되겠읍니다.

3월1일 이전 발간에 정인 제75호에는 1964년도 제1학기 강의시간표가 수록됩니다.

1964. 2. 24

외대학보사

美國에서의 로서아 研究發展 概觀과 우리의 課題

李 東 濬

美國에 있어서 「로서아」 에관한研究가 처음始作된 것은 一九一七년의 社会主義革命以前인 一九一四年以前부터서이다 當時 美國으로말하면 世界政治舞臺에서 그의 比重이 점점 커져가고있었고 또 美國自身도 그를 自覺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文學 美術 西歐 地中海의 歷史等의 研究에만 熱中해왔던 美國이 그의 知識範圍를크게 넓힐 必要性을 느꼈다 이때는 역시 「톨스토이」 「체홉」 「스타니슬라브스키」 「무소르그스키」 「챠이코브스키」 와같은 사람들에대한 연구가 西歐에서도 만연되었고 科學와 文化의 밝은 中心地에 「로시아 루네싼스」 의 새로운 開化를보게된時代이기도했다.

勿論 美國에 있어서의 「로서아」 研究가 1914年 以前에 소위 行해지지않았던것은 아니다 「유진•슈일라」 (Eugene Schuyler) 나 「죠지•케난」 (George Kennan) 같은분들은 「로시아」 研究의 先驅者였던것이다。 그러나 美國에 있어서의 「로시아」 研究는 적어도 美國內 大學들에서 하나의 「코-스」 로서 택해져 그에對한 研究가 始作됨으로써 비로서 궤도에 오르게된 것이다.

1914年頃에는 「로시아」 語와 「로시아」 文學에対한 講座가「하바드」「콜롬비아」 「캘리포니아」 等 3個大學들에 마련되었고 「로시아」 歷史의講義는 「캘리포니아」 와 「하바드」 大學들에서 行해졌다.

一九一七年의 「로시아」 社会主義革命은 亦是「로시아」 研究発展의 새로운 전환점으로되었다. 소위 새로운「이데오르기」 와 権力体制의 出現은 西歐人들의 놀라운 好奇心을 「로시아」 에로 向해지게하였고 또한 「로시아」 의 將來에關해 그들의 많은 注目과 関心을 불러 일으키게하였다. 한편 이 「붉은혁명」 의動亂으로因해 数많은우수한 「로시아」 学者들이 美國으로 亡命해왔고 그들은 美國의 学者들과 더불어 「로시아」 의 伝統的인 歷史와 文学分野의 研究에많은 공헌을했다. 그리하여 一九二〇年代및 一九三〇年代에 있어서 「로시아」 에対한 研究는 완만하기는 했으나 比較的 착실한 発展을 보여왔던바 이기간중 적은 数에 不過하기는 했으나 美國人学者들이 「로시아」 語를 비롯해서 「로시아」 문제에 必要한 諸学課들에対할 体系的인 研究를 進行하는한편 앞으로의 研究発展을 為한 土台를 마련해왔다.

1937年에 이르러서는 「쏘베트」 国内로의 入国이 거의 不可能하게됨으로써 「로시아」 研究에対한 새로운 진이 막히게되었다. 그러나 이무렵 적지않은 学者들이 계통적인 研究와 実際的인 体験을 通하여 이미 相当한 研究成果를 올리고 있었던터였다. 그間에 「로시아」 関係의 研究活動의 기반을 確立하기為해 몇몇의 努力이 支払되어왔었는데 例컨데 1934年에는 「아메리카」 学術会議(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의 主唱하에 「록펠러」 財団의 後援으로 「로서아」 語의 新教授法이 처음으로 시도되었는데이는 매우 有益한 것이었다.

「콜롬비아」 「하바드」 等各大学에서 行해진 夏期「로시아」 語 강좌는 앞으로의 「로시아」 문제研究의기초로 되는 「로시아」 語 습득에밝은 전망을 보여주게 함으로써 「로시아」 語 解得에 있어서 어렵게만 생각해왔던 종전의 概念을 분쇄해 버렸고 여기서 얻은 경험과 方法 그리고 수집된 자료들은 後日 第二次大戰中과 戰後時期에 있어서의 철저한 「로시아」 語教育의 原動力으로 되었다.

「모티머 그레이브즈」 (Mortimer Graves) 氏를 中心으로한 「아메리카」 学術会議는 1938年 「슬라브」 研究委員会를 設置하고 同研究委員会를 中心으로 「로서아」 研究에必要한 調査를 行하게 하였고 또한 「슬라브」 研究委員会로 하여금 「로시아」 研究分野에 必要한 事項과그의 將来를 検討케하는 한편 철저한 「로시아」 語学教育과 研究資料의 体系的인 수집에 重点을 두게되었다 또한 「슬라브」 研究委員会는 「로시아」 研究를 能率的으로 추진시킴에있어 새로 必要되는 經濟, 政治, 地理, 社会学分野의 여러 전문학자들의 육성과 훈련에 많은 힘을 쏟았다 그밖에도 同委員会는 「로시아」 의 歷史및 文学에関한 課程을 大学內에 설치할것을 계획하여 우선 1천5백点을 선정하여 「슬라브文化에 関한 西歐語文献集」 을 作成하였고 이어 이分野의 大学教育있 있어서 필수되는 5백点을 담은 「로시아文献集」 을 発刊했다.

이와함께 「아메리카」 学術会議는別途로 「로시아 文献翻訳計劃」 도 세워 一九四二年부터 一九四八年에걸쳐 政治情勢 經済 思想史 地理및 政治学에걸쳐 約二五点의 「로시아」 語 文献들을 英語로 翻訳하였다 當時 「런던」 에서 発行되고 있던 「슬라브•東欧레뷰誌」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의 編輯者들은 「슬라브」 研究委員会사업을 여러모로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一九三九年에 「슬라브」 研究委員会는 「슬라브 東欧関係 아메리칸•레뷰」 (American Slavic and East Europian Review) 誌의 刊行에 着手하였다

1941年까지의 美國에있어서의 「로시아」 문제 전문가들은 대개 1917年 以前의 「로시아」 文学과 歷史의 研究만을 다루어왔었다 「하바드」 및 「콜롬비아」 와같은 大学들에서는 政治学및 經済学分野의 研究等이 始作되기는 하였으나 별로할 발치못한 형편이었다 따라서 이時期의 「로시아」 研究는 주로 「윌리암•헨리•참버린」 (William Henry Chamberlin) 및 「루이스•핏샤」 (Louis Fischer) 와같은 뛰어난 「저널리스트」 들의 손에依해 行해졌고 大学教授들의 손에依한 것은 별로 없었다 勿論 大学教授들 중에서도 外国의 同時代文化의 体系的研究의 必要性과 긴급성을 強調안한것은 아니었던바 1938~41年頃에 걸쳐 「로시아」 및 기타의 地域別講座를 大学等에 設置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大学教授들 중에는 「로시아」 研究에 있어서 語学 「마스타」 가 于先이라는것을 지나치게 重視한나머지 地域別研究를 軽視하려는 경향을보였다 語学一點主義를주장하는 이들教授들중에는 또한 「地域別研究」 는 大学学課로서 普遍的価値를 못가졌을뿐 아니라 아직実證된것이 아니고 따라서 学問的価値가 적다는 理由를들어 地域別研究発展에 外面하였다 그밖에도初期에 있어서 「로시아」 研究를 저해한 가장큰 원인중의 하나로서는一般사람들 더우기 大学의 責任幹部들까지도 「로시아」 에対한 客観的이고 冷静한 研究와 教育이 行해지기 어려운것이라는 비판적인 態度를 表示해왔던데있다 뿐만 아니라 「로시아」 研究를 담당한 많은学者들이 不必要하고도 可笑롭게 思想的으로 의심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빨갱이」 라는 冷待를 받은적이한두번이 아니었던 實情이었다.

그러나 그後 漸進하고도 体系化된 研究成果가 나타나기 始作하자 이와같은 유치하고 어리석은 不待接과 冷待는 깨끗히 가셔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오늘에 와서는 「로시아」 문제 研究에 献身하는 많은 人士들이 各界의 支持와 声援아래 自由社会의 偉大한 価値에 強한愛着과 自信心을 表明하면서 他方自己들의 研究事業을 어디까지나 冷静하고도 多角度이면서도 엄정한客観的인 諸事実에 기초한 공정한結論을 뽑아내면서 自己들의 研究를 병행히 계속하고있다.

× × ×

世界를 진동시킨 第2次大戰의動乱은 지금까지의 비순적이었던 「로시아」 研究事業에 큰 拍車를 加해주었다. 美國이 그의 存在를 유지시키어 権益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当面한 여러 難問題들의 確実하고도 신속한 解決을 서두르지않으면 안되었다.

世界 여러나라의 言語와 文化그리고 歷史等에 精通한 전문가들을 確保하는것이었나 그중에서도무엇보다 「로시아」 語学習에 優先的인 주의와 対策이 강구되었는바 一九四二年一月말에 「코넬」 大学에 마련된 「로시아」 語 「集中講座」 를 先頭로해서 次次 他大学으로 번져나갔다 어떠한 나라의 말을 배우려면 그의背景으로서 그나라의 文化 制度 습관 思考方式等에 関한 一定한 照会와 知識이 必要하다함은戰争발발当初부터 認識되어왔거니와이點에 있어서 先驅的 位置를 點한것이 亦是「로시아」 研究分野였다 「록펠러」 財団의 뒷바침으로 마련된 「코넬」 大学에의 「로시아」 語 新講座는 이現実的要求를 反映해준것이었다.

이러한 計劃에 対해서 当初 政府当局者들은 비순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의 成果에 아무런 期待를 걸지않았었다. 그러나 1943年頃에 이르러 情報専門家들과 軍事要員들이 大量的으로 必要하여 지게된에 따라 陸軍및 海軍当局은 大規模的인 「地域別調査訓練計劃」 을 세워 그의 活動을 展開하여 다대한 成果를 올리게됨으로써 従前의 「아메리카」 学術会議와 其他 財団大学들에서 행했던 현저치못했던 努力과 成果들은 영영그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다.

同計劃과 병행하여 陸•海軍의地域別調査関係者들이 世界의 구석구석으로부터 実際的으로 얻어온 經驗들과 자료들에 基礎하여행해지는 同地域別研究및 教育分野에는 적지않은 우수한 青年男女学徒들이 방라되었고 그들의 活躍또한 눈부셨다. 戰爭中의 経驗에 기초하여 戰後에도 陸軍 空軍에는 우수한 語学学校들이 設置되었고 또한 各軍에서는 선택된 우수한 將校들을各大学의 地域別研究에 參加시키는計劃을 계속해왔다.

戰爭으로 因하여 美國은 世界의 곳곳에까지 접촉의 범위를 넓히는한편 그가 지닌 責任도 커졌다. 이와같은 変化된 情勢에 直面하여 여러 大学들과 財団들사이에서는未知의 나라들과 民族들에 対한 새로운 知識과 理解의 水準을 높혀야 하겠다는 関心이 보다 높아졌고 그의 実践을 위한 積極的인움직임을 보였다. 「로시아」 研究는戰前부터 開拓되어온 分野로서 아직 넉넉한数에 達하지는 못하나 先輩学者들이 多少 残存하여 있어 이는 戰後時期 「로시아」 研究를새로운段階에로 発展시키려는 諸움직임들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과연 戰後二年동안에 「로시아」 研究에 関한 새로운 規模의 計劃과 종래의 計劃을 확장시키는사업에있어 여러大学과 財団들은많은 도움을주었다. 教授와 学生들은 戰時에 얻은 풍부한 경험들을 살리면서 情熱과 自信을가지고 이野心的인 「로시아」 研究 사업에 매진했다.

1945年 以後 「로시아」 문제 研究가 急速한 進歩를 보이게된 데는 研究活動을 組織化하고 그리고 이 부문의 研究家들이 모든 誠意와 情熱을 바쳐 「로시아」 研究의 必要性과 緊迫性을 大学과 財団当局者들에게 說得시킴으로써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것에 있다 그리하여 1946年에는 大学의 地域別 研究의 基準이 定해졌는데 그基準이라함은 5個以上의 学科에 亘한 密接한 共同研究, 徹底한 語学教育의 実施 図書資料의 광범한 수집과 그의充実性保障 大学教育의 単位学課制実施等이였다

1946年末에와서 「슬라브 東欧関係 아메리칸•레뷰誌」 는 그가 가졌던 従来의 使命과 役割이 再検討되고 未知의 分野研究에 重點을두는 새로운 方針이 세워졌다

「어네스트•J•시몬즈」 (Ernest J•Simmons) 및 「죤•N•하자-드」 (John•N•Hazard) 가 編輯長으로 있던 무렵 同様関係는 急速히 発展된 研究成果를 反映함과 함께 그의 加一層의 発展에 온갖힘을 경주했다 한편高等「슬라브」 研究促進委員会는 「R•고-돈•와슨」 (R•Gordon Wasson) 氏의指導下에 그의 研究業績, 発展에 다대한 공헌을 하였다 또한 同委員会는 革命時「로시아」 의 文化와歷史研究에 重點을 두고「슬라브」 語의 必要性을 強調했다

앞서도 잠간언급한 바이지만 「아메리카」 学術会議의 「슬라브」 研究委員会는 1947年에 와서 「아메리카」 学術会議와 社会科学研究会를 合同하여 그를 「슬라브」 研究合同委員会로 改編하였다

同 合同委員会의 主된 사업은研究発表의 刊行物의 配布 学者들의 西欧蔵書의 合理的인 利用을為한便宜제공 国会図書館에 보관되어있는 「로시아」 文献의 目録作成勧告 또한 国会図書館으로 하여금 새로운 「로시아」 関係図書月報및 中欧 東部에関한 文献目録을 刊行하게끔勧告하는것等이었다 特히 合同委員会가 格別한 注意를 들여 마련한일로서는 「쏘비에트」 新聞의 「카렌트•다이제스트」 를 내놓은것이었는데 이는 「로시아」 研究事業에서 極히価値있는것이었다. 그後 同合同委員会는 계속 「슬라브」 研究의 資料수집을為한 진요한 努力을 계속했다.

1954年에와서 「쏘베트」 境內에로의 旅行制限이 완화됨에따라 旅行援助에関한 諸大学委員会는 即刻活動을 開始하여 学者들로하여금 쏘련을直接視察한수있는 機会를 마련하기에 努力했다.

한편 1958年 1月에 美蘇文化交流協定이 締結됨에따라 美国의 大学卒業生들을 쏘련으로보내 研究케함과함께 쏘련의 研究者들을 美国의 各大学에 받아드리는 사업을 促進시켰다. 곧으로 「슬라브」 研究사업에서의 国会図書館이수행했고 또現在 수행하고있는 至大한 貢献이야말로 여기에 言及해두지 않을수없다.

× × ×

「로시아」 研究는 経験主義的이기는 하지만 그目的과 方法에있어서는 何等 特別하고 静態的인것도아니다 「로시아」 研究도 地域別研究라는 점에서는 中国 日本 印度「아프리카」 或은 「라틴 아메리카」 等의 研究와 조금도 다를것이없다. 그目的은 「로시아」 의 社会 政治 經済等의 各分野或은 이들 各分野를合한 總体的인 現実을 탐라보는 것이다. 本来 地域別研究라하면 하나의 文化或은 하나의地域을 対象으로한 諸学科에対한 綜合的인 研究를 말한다.

그러나 이와같이 諸学科를 綜合的으로 研究한다는것은 결코 容易한 일은 아니다

특히 諸科学이 専門分化된 今日에 있어서 더 그러하다 그렇지만 人間社会를 洞察하며 그것을 하나의 總体的으로 보려는 努力은 学習上의 經験으로서는 매우 흥미깊은 일이 아닐수없다.

一九四五年以来 이 地域別研究에 있어서 「로시아」 에対한 研究가 其中 눈에띄는 発展을 보였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要因이있다 그中첫째는 「로시아」 의 경우 「로시아」 社会의 諸部門의 相互作用関係의 理解없이는 참된 研究가 이루워질수없으며 또 안된다는 事情이다 例컨데 「쏘베트」 의 支配者는 社会의 모든 分野를 包含하여 劃一的인体制로 꾸며놓고있다 그런데 그中가령 經済分野에서 어떤일이 일어나면 곧 政治権力構造에도 変化를일으키게하는 同時에 그에 一定한影響을 끼치게 마련이다.

또한 文学에있어서도 마찬가지로 支配者의 変心나 또는 그들의새로운 要求에따라 文化政策의 基本이 변경되며 영향을 받게되는 형편이다 따라서 「로시아」 研究에 従事하는 学者들은 自然 諸学科를 綜合的으로 다루어研究 検討하는 方法에依하려는 傾向을 가질수밖에 없는데 이는 不可不 「로시아」 에対한 多方面的인 理解를 깊이하는데 도움을 주게하는 것으로써 「로시아」 의 全般的問題研究의 発展을 促進시킨 要因中의 하나로 되었다 둘째要因은 굉장히는 어렵지않은 한 나라의말 즉 「로시아」 語만의 습득으로서도 政治経済의 主된 움직임을 研究할수있다는 그것이다 勿論 「로시아」 以外의 地域研究에 있어서도 該当語学을 習得하면 그나라의 文化를 비롯해서 諸問題를 研究할수있고 또한 이 地域別研究는 「로시아」 以外의 地域에도 확장되고 있다.

即「쏘베트」 支配下의 衛星諸国에対한 比較検討를 비롯해서 많은긴요한 地域研究問題들이 많은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로시아」 研究의 경우에 있어서는 重要한 国語一種類만의 充分한 「마스타」 만으로서도 相当한 研究成果를 올릴수 있다는 것이 極東研究 印度研究 回教圏研究等에 比해 다른点이라 하겠다.

세째 要因으로서는 「쏘베트」 의봉쇄된 비밀주의가 도리어 젊은学者들로 하여금 「로시아」 에 対한 研究熱을 불태우게하고있는 事情인것이다 만약 「쏘베트」 의 統治者가社会의 諸分野를 활짝 開放하고 누구라도 쉽게 研究할수 있는 機会를 주었다면 諸般事情은 달라졌을 것이 의심안되는바 아마 수다한学者들이 지금까지의 情熱을 가지고 잘 믿어지지않는「쏘베트」 에 관한 資料를 調査하거나 쏘련의 經済成長率에関한 선전적인 통계수자를수집하거나 개작된 共産党史나 支配者들의 伝記같은것을 찾아보는 일들은 없을것이다.

「쏘비에트」 의 制度와 그의発展 「쏘비에트」 政府의 内政과 外交等의 問題를 客観的으로 分析解明하는 일들은 오늘날 緊急을 要하는 題이다 이같은 実情은 「로시아」 문제研究에 새로운 努力과 그의発展에 加一層의 拍車를 加해주게하고 있다.

「로시아」 研究에 関聯된 諸機関들은 이와같은 現実的 要請에 순응하기為해 人材와 予算이 許容하는限 「로시아」 문제에対한 체계적인 研究를 추진시키기위한 諸般努力을 다한結果 많은 成果를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로시아」 研究사업에서 不充分하고 未備된點들이 아직 許多하다는것도 오늘 美国의 사정이기도하다.

<다음호에계속>

(로어과강사)

HEN'S PARTY 이긴 사연을

이 형 숙

창 밖엔 제법 탐스러운눈송이가 날리고 있다. 땅에 채 쌓이기도 전에 허공에서 그형재조차 잃어버리고 마는 눈송이처럼 4년전 막을올린내대학생활의4막극 이주인공의연기부족으로좋은 결실을 남기지 못한채, 이제 그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 내맘속도 주변도 이렇게 솔직할땐 눈 내리는 오솔길을 걸어가며 내 하소연 아닌 푸념이라도들어줄 상대라도 있었으면…길다면 긴 4년의 대학 여정에서 맘에 맞는 길동무 하나도 얻지 못했다고 하면 더러는 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단지 주변이 없는 나의 못난 성격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말하고 싶다.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이차가우면서도 보드라운 눈의 감촉을 실컷 맛보며 혼자서라도 눈길을 걸어가면서 긴 사연을 정리해야겠다. 이 절박한 시기, 내딴이 란 근자를 눈이 아프게 보아왔고 지상으로 펼쳐지는 서민들의 생활상은 절망을 極하여 때에 사무치고 가슴아픈 사연들 뿐임을 생각할때이 무슨 사치스러운 맘의 여유이냐고 자책도 되지만 현실만이 삶의 터전이 아니라고 자처하는 젊은 이들에겐 역시 기억에 되살려지는 과거가 있고맘껏 공상의 날개를 펴 보는가슴 부푼 미래가 뇌리에 정착되어 있다고 해서 동키호테라고만 나무랄수 있을가?

삶의 허전함 화려하지도 않았건만 자꾸 되살려지는 내캅은 지나간 이십여년 남들이야 들으면 비웃을지도 모르는 내 조그만 소망. 이 모든것을 제쳐놓고 올해만은 꼭 맘에 드는 연인이라도 만나게 되면내 젊음을 한껏 불살라 버리려던 기대도 헛되이 난 또 한해를 보내고 학창을 떠나게 되었으며 주기적인 생활태도로 압축된정열은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또 유예선고를 받게 되었다.

학사학위란 약속어음 한장으로 대학 4년의 발자취와 아쉬웠던 학우들과의 友誼가 청산되려는 이제 맘속에 남은건 허다한 未解決의 문제점들…시야에서 사라지려 하는 희미한 영상을 붙잡으려 발버둥쳐봤자 소득은 없을지언정 결코 이런 안타까움도 없다면 난 차라리 목석이라도 되란 말인가? 그러나 失望친 않으련다. 앞으로 내게 펼쳐질 生의 파노라마엔 무한한 所望도 前進의 가능성도 内包되었을 것이며 젊음을 発散할 出口도 찾을수있겠지… 새달력이 걸릴적마다 연륜이 쌓여가고 이렇게해서 나도 성장하는 것이겠지만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려는 이순간 내겐 사회란 한갓 매정한 人情이모인 냉기찬 次元의 세계로만보이니 차라리 두려움이 앞선다 아쉬운대로 내좁은 領域을 박차고 어디론가 훨훨 떠나가고 싶지만 그런대로 현실을 외면해 버릴수없는것이人間이기에…

살며시 옷깃을 스치는바람이 제법 감미롭다 어느새 봄이찾아오고 있나보다 내게 運命지워진 前途가 이 봄바람을 타고 찾아준다면 필경 큰破綻이 없는 坦坦大路일 것이라고 新願한다 (영어과 졸업반)

두革命에지새인螢雪의功

設問

(1) 在學中 가장 印象 깊었던 일은?
(2) 大學 時節의 로맨스는?
(3) 男女共學에對한 意見
(4) 四年間 점심時間을 어떻게 보냈죠?
(5) 다시 新入生이 된다면?
(6) 卒業하는 男學生(女學生)에게 주고 싶은 말은?

남김없이 쏟도록

英語科 최화자

①老学年 처음 入学했을때 体育大会였어요. 늦가을이어서 날씨는 추웠지만 学校에서 学生들에게 주는 膳物이 많더군요. 特히 그 날 某 助教님이 노래하시던 모습은只今도 記憶에 生生해요.

② 機会를 얻을 수 없다면 굿이 가지려고 애쓸 必要는 없다구 생각해요. 精熱을 얼마든지 다른데다 쏟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 機会가 있다면 同性이면 멋지게 恋愛하라고 勧하고 싶어요. 모든 精熱을남김없이쏟구, 아름답게라구요.

③ 모든 點에 長短點이 있지마는 特히 男女共学엔 어젯이 뚜렸해요. 工夫함에 있어서는 男女 共学이 -좋더군요. 女学生끼리의 그것보담 훨씬 甚한 競爭을 해야 했던 것 같으니까요. 허지만 女学生들은 学窓時節의 生活을 좀더多彩롭게 할 수 없어서 나빠요. 男学生들 눈치를 보아야 했으니까요또많은 女子 親旧를 가질수 없어서 나쁘구요.

④點心時間 돌아오는게 女学生들한텐 第一苦悶이었어요 숫한 男学生들 틈서 몸둘 곳을 몰라 쩔쩔맸어요 그래 우리들은 主로 学校食堂 부엌에서 먹었죠 学生 食堂엔 들어갈 勇気가 없었어요

⑤다시 新入生이 된다면 해보고 싶은일이 많습니다 工夫도 徹底히 해보고 싶구요 멋진 Romance를갖구싶고 좋은 親旧를 많이 사귀고 教授任들하구 더 親해보고싶습니다

⑥個個人이 바라는所定의目的에到達키為해모든 努力을 아끼지않으것을 付託합니다

가시발속장미

英語科 金容昱

① 시골출신이漢陽에와 留学하노라니 오죽했겠읍니까? 印象에 남는일이 너무 많아요 그中에서도 이불짐 지고下宿옮길 때의 서글픈일들이죠 시골 양반들 무슨 말인지 잘 알겝니다. 집 없는 서러움 바그것입니다

②동그라미가 있어야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것도 있죠. 다 아시면서 물으시네 묻지 마세요 곤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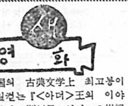
③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학생의 하이•힐 소리가 講義를 듣는 学生들의 神経을 건드리니 말입니다 虛虛…이거 되겠읍니까? 이거 안됩니다.

④学生 時節에 무슨 돈이 있겠읍니까? 그저 싸구려 밀기루 음식을 愛用(?)했죠. 쌀보다 熱量 많아좋구, 값이 싸서 좋구, 그리구 人体에서빚어내는 生理学的 影響과 労害을 거저 얻을수 있으니 좋구, 이래서 사랑해 밀것만 먹었죠.

⑤ 보다 많은 책을 읽을수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⑥ 가시밭 속의 장미가 되오리다. 바로 이것이죠, 華麗한 공원에 피어지기를 願하던 「甲」 이라는 장미는 모여 드는 사람의 눈에 쉽게 뜨이니 꺾이우기 쉽구요. 가로에 피기를 바라던 「乙」 이라는 장미는 오가는 행인들의 손에 꺾이고 말고요. 가시밭 속에 피어지기를 바라던 「丙」 이라는 장미는 그 아름다움을 오래지니며 살더란 말입니다.

새 영화



圓卓의 騎士

英国의 古典文学上 최고봉이라 일컫는『<아더>王의 이야기』에서 題材를 얻어 9世紀 英国 国土統一의 英雄으로 알려진<아더>王과 그의 周圍에 있었던 勇敢한 騎士들의 伝説을 総天然色 싸네마스코프 画面에 옮긴 오락사극 映画로 史劇映画의 定石인 王에대한 万古不変의 忠誠이있고 불을 튀기는 剣術과 多彩로운 사랑이 展開된다

王位추대 問題로 各제후들이 궁정에모여 会議를 열고있을때 이合議에 参席하려 달려오는途中「모드레드」一党의 습격을받은 「랜스럿트」 (로버트•테일러扮) 는 얼떨김에 아직 王이되지 않은<아더>에게 충성할것을 맹세해버린다.

간사한 「모드레드」 의 배반으로 천신만고 王位에 오른<아더王을 알현하려 가는길에서 「랜스럿트」 는 아더의 아내인왕후 「기네비아」 (에바 가드너扮) 를 보고 깜작놀란다。 그녀는 그가 前에 危険에서 求해준 일이 있고그 以後 서로가 짙은 사랑에 빠졌던사이었던 것이다。

「랜스럿트」 는 意識的으로 그녀에게 차게 내하고 그럴수록 「기네비아」 는 그에게 끌려 이것이 敵인 「모드레드」 에게 들켜짐으로서 王에게까지 고자질 된다。

「기네비아」 가 修女院에 유폐되고, 「랜스럿트」 는 귀양보내진 사이 「모드레드」 는 반란을 일으킨다。결국 王은 뒤늦게事実을 알고 달려간 「랜스럿트」 의 품에 안겨죽고 「랜스럿트」 는 王의 뜻을 이어 国土統一의 偉業에 몸을 바친다는 이야기로서 「리바이벌」 삼음 다고 두번째 韓国에 上陸한 것。

「黑騎士」 의 全staff를 그대로 利用해서 M•G•M社가M•G•M 제1회 씨네스코總天然色 作品으로 選定한 것이라 하는데 스펙터클한 剣術場面이 볼 零있고<팝씬>処理等 리차드•소프監督의 뛰어난 솜씨가 뚜드러진다 그러나 「랜스럿트」 의 人間的인面이 忠誠과 스펙터큰에 눌려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것이 흠이라할까? 往年의美男배우 로버트•테일러와 그래머 스타인 에바•가드너 그리고 멜•파라 스탄리•베이커等 現役의 人気배우들의 競演이흥미롭다。 원제 Knights of the Round Table 於 大韓劇場

入口와는 다른 男女共學

佛語科 김황중

①친족 같은 어둠속에서 연극 대사가 아닌 배고픔의결규를 일삼던 연극 연습때의 일

②一生을 通해 가장 많이 자라고 純粹한 自己를 発見하는 時期는 바로 로맨스가 이루어지는 時期라고 말한 어느 作家가 생각나는군요 하물며 가장 知性을 자랑한다는 大学時節의 로맨스야…

다만 그것이 一時的이든 영원한것이든 누구나 한번씩은 거쳐야할 過程이라고 해주죠 이것이 아직껏 公開할 価値가있는 로맨스를 만들지 못한 갓난이(?)의 独白은 아이겠죠?

③부드럽고 가냘프기만한 女子들만의 対話에서 채우지못한 그무엇이 힘차고 우렁찬 対話를 希求하면서부터 男女共学을 꿈궈왔죠. 단발머리에 남학구두 차림의 外大生이 되면날, 숱한 男学生들의 모습에서 憧憬을얻은 希求는 모르는사이 諦念이라는 過程을거쳐 無関心으로, 入口에서와는 조금 다른男女共学의 意味속에서 出口를 向하는 姿勢로 変했으나 男女共学하는 大学 卒業生이기에 멋진 男女共学의 大学生을 위하여 바라는마음은 서로가 지나친 自尊에서 벗어나 서로를 理解하려는 努力이 있었으면합니다. 지나친 関心도 곤난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건 無関心이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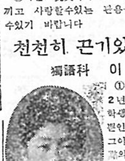
④아카데믹한 분위기와 男学生들의 重圧에서 벗어날수있는 女学生들만의 唯一한 시간이 바로 점심시간이죠 유난히 여학생수가 많았고 하나같이 흠없이 어울릴수 있었던 우리科 女学生들은 점심시간이 되기가 무섭게 우리만의 女学校를 만들기에 바빴죠 하루사이에 밀렸던 対話가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시간이기도하죠 어느덧 지금은 점심시간으로 빚어진 그럴듯한 우리반의 여학교를 이룰랩이 탈까요

⑤学校와 册과 나사이의 빈틈없는 王国을 만들어 女王으로 군림하고 싶습니다

⑥어떤 現実속에서도 한女人을아끼고 사랑할수있는 관용을 베푸신 수있기 바랍니다

천천히 끈기있게

獨語科 이경희



①1, 2학년 2년 동안 여학생이란 하나뿐인 教室에서 그야말로 紅一點의位置를 지키노라고 바둥대던일과 女学生 会長이란 간판때문에 本意아닌 일을당하던 것 等等…

②후회하지 않을 程度로 했고그래서 또한 오해도 받았으나 될수있으면 서두르지 말라고 권하고싶어요 역시 귀에 익은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가 옛얘기는 아니니까요. Romance란 게 별것 아니라고 해둘까요?

③男女共学은 그 教育理念도 훌륭하고 또 나의 大学生活과 人生에 많은 Plus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後에 내게 딸이 열명이나 된다 해도 그중에 한名도 女共学하는 大学에는 보내지 않어요. 왜냐구요? 工夫하는 데에는 도움이 많지만 女性으로선 落第되기 쉬우니까요. 伊 女子大学生에 比해서.

④大部分 親旧들과 같이 里門洞 쉬커•집이라는 뒷 중산계 음악사랑. 人生. 生活에 처하여 意見을交換하며 実없을 주어 책간피에 끼우노라 보냈죠. 남학생들 눈총을 피하는 데에걸 반즘은 虛送했지만……

⑤전공은 勿論이고 多方面에 걸쳐 読書를 하고싶어요. 판때는 전혀 눈을돌려 놓고.

⑥毎事에 自信을 갖고보든일을결은이 담게 즐며적극적으로 밀고 나갔으면합니다.

닭 벼슬 하려다

獨語科 우보원

①닭의 벼슬을하려다 사랑친구마저 잃고 눈물 떨어뜨렸을 때와 E여대생들과 대포집에서 막걸리 마시던 그날 저녁。

②노랗게 물든그림에 파란 벤취…아파트, 그리워 산뜻히 못 잊는데 어쩌면 생각이 떠나지요。

③고전 음악실의 여대생 같아서 별로 공학의 맛을 모름, 남녀 공학 여대생의 사랑은<무지>처럼싸늘하기만 한 무생물?

④식당 주방에서 여학생과 어울려 짜장면 먹는 재미에 한번도도시락 신세는 안 졌읍니다 가끔대포 한잔에 돼지 갈비 하나로 보충도 했구요。

⑤교내외 활동은 절대로 안해요 전공외에 세 과목을 선정하여 하루에 꼭 세 시간씩 책을 보겠어요 가끔 Romance도 20%쯤?

⑥재즈•트위스트보다 한국 민요를 많이 불러 주세요。

殆치 못한 대포와의 正面衝突

中語科 李忠基

①만신창이가 된하이얀 建物을 보았을때 (1960年6月5日 下後)

②포근히 사랑했던 그 달콤함,그 그림자가 없었다면病身이라 할것이고있다고 하면?…하기야 楽天의 가면을쓰고 돌아누울수는 없었으니까…

③女子大学 以外에는 모두 男子大学이 되겠는데 그래도 너무나조용했던 過去의 男女間 特性을 풀피우기 為해서는 •그 잠잠한波狀에 가끔 요란스런 바람을 불어도 주었으면. (老子기도精神이 밝아지겠는데…)

④ 점심 時間에는 점심을 먹는것이 正常的일텐데 먼치못하던 「대포」 와 正面衝突로도 가끔 浪費

⑤ 우선 행복감을 느낄것이고다음으론 冷静性을 갖고 講義를 들어본 作定

⑥ 부디 행복하기를 빌겠읍니다

BETTER HALF가

獨語科 이문화

①벅찬 꿈으로 미친 듯이 学生会長選挙戰을 치른後 勝利의 한표 한표를 確認했을때 그리고 사랑하던 後輩가 壱年 後 다시 이 選挙에 敗北한 슬픔이 온 몸 全体에 깊이 스며들어 멀리면 배의일

②大学 時節 동안에는 選해 보려고 애를 무척이나 썼는데…

③学校 当局의 積極的인 制度의 計劃的인 試図에 誠意가 있고 또 学友들이 좀더 生活的이고 自然스런 関心과 態度를 갖추어 준다면 훌륭한 効果가 있을 법

④親友들과 有益한 親交의 時間으로 活動한 듯하오 그러나 때로는 친교의 時間이 다음 講義의 缺席을 만들었으니…

⑤希望과 択하고 싶은 職業의実現과 準備를 為해서 더욱 실속있는 研究的 姿勢로서 大学 生活을 해보고 싶소.

⑥結婚 하시면 男便에겐 善良한 Better half로서 子女에겐賢淑한어머니가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역학과 7대 1

금년도 입시 끝내

본대학의 금년도 신입생 입학시험이 일반 전기대학과 마찬가지로 지난 2월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되어 때아닌 늦추위에 채 녹지않은 교정을 좁은문을 뚫으려는수험생들로 붐비었다.

지난 1월31일로 원서마감을 본 대학의 경쟁율을 보면 460명모집에 1388명이 몰려들어 평균3:1이었고 특히 무역학과의 경우5:1을 넘는 경쟁율을 보임으로서 초조한 수험생들을 설레이게했다.

본 입학 시험은 2월3일에 필기시험, 그리고 4일과 5일에는각각 체능고사와 신체검사및 면접고사를 실시하고, 2월8일 10시에합격자발표를 한것인데 응시자가 모집정원을 몇배나 넘는데도 2월3일자의 전기 입시에서 모집 정원을 전부 뽑지않은 것은 신입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것으로『기준성격에 미치지못한 수험생을 도저히 합격시킬수는 없었다』고 대학당국의 방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2월8일의 합격자수에 준한 2월3일의 입시 경쟁율은 평균 약4.6:1이며 최고의 경쟁율을보인 무역학과에 있어서는7:1을 훨신 넘는것이었다.

한편 신입생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부득이 추가 모집을 해야 했던신입생 추가 모집 고사는 2월 20일에 필기 시험을 실시했는데 지난 18일의 원서마감에서 보면 평균 8:1의 경쟁율로서 전에 볼수 없었던 높은 경쟁율이었다。

본 추가 모집은 오는 2월 26일에 최종합격자 발표를 볼 것이며 2월 22일에 1차 합격자를 발표하여 23일에 체능 고사를, 그리고 24일에는 면접 고사와 신체검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2차의 신입생 입학 고사를 실시한 대학 당국에서는『내년부터는 결코 추가 모집이 없을 것이며 전기 입시에서 모집 정원 전부를 뽑겠다』고 완강하게 대학방침을 시사하고 있어 내년도 입시생들의 주목거리가 될것이다

또한 2월3일의 전 본대학 입시에 있어서는 7명의 농구부원과 4명의 펜싱부원의 특기자를 뽑은바있다 2월8일에 발표한 전기합격자는 각과별로 다음과같다

E과 : 74명 F과 : 21명
C과 : 20명 G과 : 24명
R과 : 20명 S과 : 30명
J과 : 20명 It과 : 20명
In과 : 26명 무역과 : 25명
외교과 : 23명 (외국인 1명포함)